

자율관리어업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상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제13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10월 27~28일, 동해시 동해체육관에서 개최



제13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관계기관 업무협의 회의 모습

제13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정착 및 어업인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개최되어온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어업인과 관련기관·단체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간 강원도 동해시 동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가 주관하고 강원도, 동해시, 한국수산업협회가 후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7일 강원도, 동해시, 한국수산업협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및 행사 대행업체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대회 행사 준비사항 사전점검 및 관련업무 등을 협의했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2003~2015년)〉

구분	개최지	일자
제1회(2003년)	전남(목포) 목포지방해양수산청	'03.11.3.~4.
제2회(2004년)	경남(통영) 금호마리나리조트	'04.10.28.~29.
제3회(2005년)	충남(천안) 수협 천안연수원	'05.11.3.~4.
제4회(2006년)	제주(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06.11.22.~23.
제5회(2007년)	충남(보령) 보령시 문화예술관	'07.6.28.~29.
제6회(2008년)	강원(속초) 속초시 문화회관	'08.11.13.~14.
제7회(2010년)	전남(여수) 여수시민회관	'10.11.4.~5.
제8회(2011년)	경기(고양) 고양시 킨텍스	'11.11.2.~3.
제9회(2012년)	전북(고창) 고창체육관	'12.10.9.~10.
제10회(2013년)	경북(경주) 경주 실내체육관	'13.11.7.~8.
제11회(2014년)	충북(단양) 단양 국민체육센터	'14.11.5.~6.
제12회(2015년)	부산광역시(부산) 벡스코	'15.10.29.~30.

제2회 통영시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

경남 통영시연합회 주관, 10월 18일 경남 통영 생활체육공원에서



제2회 통영시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 전경

(사)한국자율관리어업 경남 통영시연합회(회장 이남권)는 오는 10월 18일 경남 통영시 용남면에 위치한 통영

생활체육공원에서 통영시 관내 68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구성원 및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통영시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2014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통영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간 화합 및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통영시연합회가 주관하여 개최한다.

2016년 자율관리어업 평가위원회에서 태안 곰섬공동체, 최우수공동체로 선정

올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에서 충남 태안군 곰섬공동체(위원장 강찬순)가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우수공동체에는 경남 남해 본촌공동체, 장려공동체에는 전남 보성 동을공동체가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9일 대전 아드리아호텔 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자율관리어업 평가위원회 및 공동체 사업계획서 심의 결과 이들 3개 공동체를 금년도 최우수, 우수, 장려공동체로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안 곰섬공동체는 간척사업으로



2016년 자율관리어업 평가위원회 회의 모습

황폐화된 마을어장에 적극적인 자원 조성 노력을 기울여 해삼 및 바지락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부자 공동체로 변모시켜 최우수공동체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공동체는 정부포상 및 육성사업비 추가지원, 홍보동영상 제작 및 전국대회 상영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관련기사 3면>

국민 눈높이로 다가가는 열린 정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 3.0

더 큰 가치로 돌아옵니다

아직도 어린물고기를 잡아 드시나요?

내일을 위해 어린물고기가 충분히 크고 번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한번 일을 놓으면 몇 만 마리의 물고기가 태어납니다.
한번만 참으면 어린물고기는 더 큰 가치가 되어 돌아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수산회, 2016년 신규공동체 활성화 교육 실시



한국수산회 김동철 컨설턴트가 자율관리어업 필요성 및 정책방향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한국수산회는 자율관리어업 신규공동체의 성공적인 정착과 성공한 공동체를 방문 및 견학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올해 신규 사업인 신규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1차 교육은 8월 24~25일 양일간 충남 태안군 신규공동체 신야2리, 장곡4리공동체 구성원 및 관계기관 업무담당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면도수협 및 백미리공동체에서 실시, 2차 교육은 9월 1일 충남 서산시 신규공동체 가로림공동체 구성원 및 관계기관 업무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미리공동체에서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자율관리어업 필요성 및 정책방향, 우수공동체 사례발표 및 현장견학 등이다.

한국수산회는 앞으로 신규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규공동체 관할 수산사무소와 교육일정을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3차 9월 27~28일 충북 옥천군 향수내수면공동체, 4차 10월 5~6일 충남 태안군 울포공동체, 정당2리공동체)이다.



백미리공동체 이창미 사무장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백미리공동체 어업현장 견학



신규 공동체(신야2리, 장곡4리) 활성화 교육 단체사진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위해 전문 컨설턴트 인력 보강



한국수산회 김영규 회장이 전문 컨설턴트 활동과 관련한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수산회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수산회는 지난 9월

6일 자율관리어업 업무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외부 전문가 5명을 컨설턴트로 위촉, 공동체의 수산자원관리, 어촌관광 및 체험, 수산경영분야에 대한 활동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자율관리공동체 컨설팅 및 컨설턴트 활동

전문분야 컨설팅 안내

자율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분야 컨설팅이 실시된다. 기 참여 공동체 중 특정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희망하는 공동체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가 3~5회의 범위 내에서 직접 공동체를 방문하여 공동체가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컨설팅이 필요한 주요 전문분야로는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분야, 체험시설 등 관광과 연계한 분야, 공동체 경영분야, 공동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 및 유통분야 등이 있으며,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희망분야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하게 된다.

전문분야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공동체에서는 언제든지 지자체 수산사무소를 통하여 한국수산회로 신청할 수 있으며, 타당성 검토 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연락처 : 한국수산회 자율관리팀(전화 02-589-4604, 4609)

지역담당 컨설턴트, 컨설팅 이외 교육활동에도 적극 참여

지역담당 컨설턴트(12명)는 공동체에 대한 컨설팅뿐만 아니라 관할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및 아직 자율관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어촌계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 확산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8월 중에 활동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임여호 컨설턴트

- 2016. 8. 20. / 부산 모덕초교 어린이 및 학부모, 순천 라이온스클럽 회원 및 안남공동체 구성원 등 145명 대상
- 개막이 행사 추진 관련 컨설팅 및 갯벌에 서식하는 수산생물, 갯벌보존 및 관리방법 등 교육



▶ 서광일 컨설턴트

- 2016. 8. 24. / 전남 진도 회동어촌계 40명 대상
- FTA 통상협상수산분야 대응방안 및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산치직송 수산물 전문 쇼핑몰 피쉬세일 www.fishsale.co.kr

식탁 위의 건강한 먹거리 피쉬세일이 차려드립니다.

어업인 수산물 인터넷판매 한국수산회가 도와드립니다.

2016년 자율관리어업 최우수 공동체 / 태안 곰섬공동체

간척사업으로 쇠락한 포구, 해삼양식으로 부촌(富村)의 꿈 일궈



곰섬공동체 강찬순 위원장

천수만 간척사업으로 어장이 황폐화돼 쇠락의 길을 걷던 충남 태안의 한 작은 어촌마을이 자율관리어업을 통해 부촌의 꿈을 키우고 있다. 해삼양식으로 바다생태학교를 꿈꾸는 마을, 충남 태안군 남면 곰섬마을이다.

곰섬자율관리어업공동체(위원장 강찬순)는 2016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에서 전국의 1000여개가 넘는 공동체 중 최우수공동체의 영예를 안아 오는 10월 강원 동해시에서 열리는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서 대통령 단체표창과 함께 육성사업비도 추가 지원받게 됐다.

태안군 남면 신운리에 위치한 곰섬마을은 1980~1990년대 전국 최고 수준의 바지락과 김 생산지로 명성이 높았지만 천수만 간척사업으로 물의 흐름이 바뀌면서 김에 질병이 발생하고, 바지락양식장 매몰 등 어장변화로 소득이 격감했다. 이후 2000년 후반까지 어려움을 겪던 곰섬 어업인들은 수산사무소의 조언으로 지난 2009년 50여명의 주민들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결성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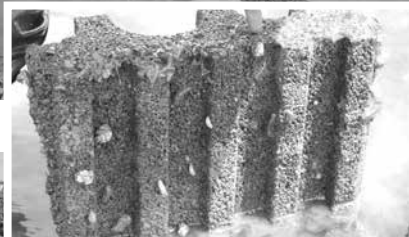
특히 공동체 결성 이듬해 12월에는 원활한 공동체 활동을 위해 공동체내 영어조합법인을 결성해 자금마련을 꾀했다. 해삼양식의 적지인 이곳에 이미 쇠락한 김 양식을 해삼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가 필요했지만 당시에는 공동체 기금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원에 한정하여 조합원을 구성, 1인당 적게는 2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출연을 받아 6억8천여만원의 자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부터 해삼전용 인공어초를 투입하는 한편, 2013년부터 60톤에 달하는 바지락 증파를 살포하고 지난해에는



충남 태안 남면 신운리 곰섬공동체 전경



곰섬지선에 있는 해삼 중간육성 시범어장에서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해삼전용 인공어초에 어린 해삼들이 은신해 있다.



곰섬공동체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대의원 회의 모습

해삼 인공어초 1000개와 해삼종묘 7만5000마리를 입식하는 등 본격적인 자원조성을 꾀했다.

특히 이곳에서는 해삼전용 인공어초 투입을 통한 자연 산란장 조성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국립수산물연구원 서해수산연구소 연구결과 2014년 자연 발생장(1ha)에서 해삼 9.3개체/㎡가 2015년 11월에는 17.5개체/㎡로 늘어나는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향후 자연 산란장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공동체는 지난해부터 태안수산사무소와 해삼 중간육성 양식 시범사업도 추진, 현재 양호한 성장상태를 보임에 따라 곰섬공동체에 해삼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밖에 곰섬공동체는 어장 정화활동에도 적극 나서 불가사리를 연간 10여톤씩 수거하고, 매년 80톤에 달하는 해안쓰레기를 정화해 깨끗한 마을환경 개선에 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곰섬공동체의 소득도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해삼의 경우 지난 2012년 1억7000여만원에서 지난해 3억9800만원으로, 바지락은 1억8200만원에서 1억9500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해삼 생산량은 2014년 12.1톤에서 2015년 27.4톤으로 급증했는데, 이같은 생산량

증대는 인공어초와 투석, 종묘방류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년 조합원들의 출자금만큼 배당이 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합심하여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미·니·인·터·뷰

태안에서 2년 연속 최우수·우수공동체 배출 주역 "자율관리어업 확산 위해 어업인 교육 강화 필요"



충남수산관리소 태안사무소 강종순 팀장

의 뒷받침도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이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에서 지난해 대야도공동체가 우수공동체, 올해는 곰섬공동체가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되기까지는 관할 태안사무소에서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강종순 팀장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관내 어업인들의 평판이다.

자율관리어업은 공동체 지도자의 리더십과 회원 간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관할 수산사무소

고향인 태안에서 인문고교를 졸업한 강 팀장은 어류양식업 등 수산업에 종사하다 30살의 늦깎이로 여수수대를 나와 지난 2001년 고흥수산사무소를 시작으로 어업인 지도업무에 15년째 매진하고 있다. 대학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 어업인과 소통하며 자율관리어업 확산에 주력한 강 팀장은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들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바쁜 와중에도 어업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의 결산총회 등을 찾아다니며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공동체의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 태안 관내 4개 신규공동체를 대상으로 한국수산회 협조 하에 선진 공동체 견학교육까지 추진하는 등 열의를 보여 어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해수부, 전국 유어장·낙시터 운영실태 점검

낙시터 733개, 유어장 177개 시설기준 충족 여부 조사



해수부는 전국 유어장과 낙시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국의 유어장과 낙시터의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돌고래호 낙시어선 사고 이후 낙시어선의 안전기준과 관리를 강화한데 이어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 등으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유어장, 낙시터에 대하여도 안전 점검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2015년 말 기준으로 허가등록된 낙시터 733개소, 유어장 177개소 등 총 910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수상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낙시업중앙회, 낙시명예감시원이 공동으로 특별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한다. 점검 기간에는 유어장과 낙시터의 안전시설 설치, 보험 가입, 편의시설

구비 등 시설기준 충족 여부와 사행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수상시설물은 부력체, 상부 구조물의 재료와 구조, 보호 장치 및 탈출 설비 등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법 행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지도 및 계도,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돌고래호 사고 이후 낙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 낙시어선뿐만 아니라 유어장과 낙시터도 철저히 안전 점검을 하여 낙시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점검기간 동안 지자체 담당자, 업주,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여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향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반영할 계획이다.

서해5도 연평어장 폐어구 수거

해수부, 꽃게 금어기에 78톤 수거완료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꽃게잡이 가을어기를 앞두고 서해 5도 연평어장의 유실, 침적돼 있는 폐어구 수거작업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는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꽃게 어획량 감소 등에 따른 어업인 요구를 반영해 어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꽃게 금어기인 7~8월간 약 3억 원을 투입해 연평어장 내 1만 6,679ha에 깔린 폐어구류 85톤을 수거했다.

수거된 폐어구는 자망류와 부속기 자재인 대형 닻이 약 85%, 와이어 등 로프류가 10%, 통발류 등 기타 쓰레기가 약 5% 등이다.

해수부는 매년 서해 5도 주요어장을 대상으로 폐어구 수거사업을 추진해 왔다.

수협 2016년 제2차 어촌계장 교육 실시



수협중앙회는 9월 1~2일 양일간 천안연수원에서 전국 어촌계장들을 대상으로 어촌계장 관리능력 배양 및 강한 어촌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어촌계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20개 조합 51명의 어촌계장들이 참석, △어업인 소득복지 정책방향 △

어촌6차산업화 개념 및 추진방향 △ 어촌계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 교육 △ 수산업법 및 수산물관계법규 등의 교육을 받았다. 특히 선진 어촌계인 ‘무창포어촌계’를 방문해 수산물위판장, 직판장, 어항시설 등을 견학하는 현장교육도 함께 가졌다.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로 양식장 어장환경 개선

친환경 부표의 50% 이상 기존 부표 반납해야

해양수산부는 9월 6일 친환경부표 보급 활성화를 위한 2017년도 친환경부표 보급지원 사업시행지침을 확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친환경부표 보급지원 사업은 양식장 어장환경을 개선하고자 2015년부터 추진했으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은 일부 비용을 부담해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바꿀 수 있다.

친환경부표는 스티로폼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스티로폼 배출이 현저히 낮은 제품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의 내구성과 성능 기준을 통과해 인증서를 받은 것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우

리 어장을 보다 환경 친화적으로 가꾸기 위해 매년 친환경부표 인증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친환경부표 구입을 지원받으려는 어업인은 구입량의 50% 이상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의무적으로 반납하게 해 어업인들이 폐스티로폼 부표를 자발적으로 수거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친환경부표 인증이 지연돼 6~7월부터 친환경부표를 구입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2월말까지 친환경 부표 인증 절차를 완료해 어업인들이 3월부터 부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고수온 피해어업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5억원 지원

해양수산부는 8~9월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35억원을 배정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는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9월 기준 1.03%)이며 융자기간은 1년이다. 지역별 지급액은 경남 17억9,000만원, 충남 12억3,000만원, 경북 3억9,000만원, 부산 5,000만원, 전남 4,000만원으로 피해 어업인에 1차로 지원이 되며, 전북 폐사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인 완도 등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지원하게 된다. 해수부 수산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재해복구비 지원과 별도로 융자 지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피해 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어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재해피해 어업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일선수협에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제주 한림항에서, 어선안전의 날 합동캠페인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본부는 9월 1일 제주 한림항에서 ‘어선안전의 날’ 합동캠페인 및 V-ON 운동 결의 대회’를 가졌다.

이번 합동캠페인은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동해어업관리단 △제주도청 △제주지방해양안전본부 △선박안전기술공단 △어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해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업 결의문 낭독, 구명조끼 착용 및 소화기시연, 구명뗏목 해상시연, 가두캠페인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합동캠페인에서 조업 중 ‘화재 및 위급상황’을 가정한 선원들의 구명뗏목을 활용한 비상탈출과정 등을 재연함으로써 어업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2016 국제연안정화의 날 기념식 완도에서 열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신우철 완도군수, 시민 학생 등 1000여명 참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9일 완도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 2016년 국제 연안정화의 날(ICC) 행사가 열렸다.

2016 국제연안정화의 날 기념식이 9월 9일 전남 완도군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열렸다. 기념식에는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 완도군 신우철 군수를 비롯하여 시민, 학생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김영석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 주어야 한다고 하며, 시민들은 일상 생활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어업인은 못 쓰게 된 어구를 육지로 되가져와 재대로 처리

하는 등의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해양쓰레기 줄이기 자율 실천 선언, 해양 환경 서포터즈 임명, 해양쓰레기 줄이기 슬로건 선포식 등도 함께 진행되었다. 기념식 후 참가자들은 해변의 쓰레기를 줍고 기록하는 시간도 가졌다. 행사장 입구에서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이동식 해양환경교실 차량이 행사 참가자들에게 해양환경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국제연안정화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기하여 전세계적으로 열리는 해양쓰레기 청소 행사이다. 1986년 미국 텍사스에서 시작되어 2015년 30주년을 맞았다. 매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2015년 전세계 참가자는 70만명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참여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연간 약 18만 톤에 이른다. 이중 12만 톤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며, 나머지 6만 톤은 조업활동이나 선박운항 과정에서 발생한다. 해양 쓰레기는 해양생태계를 파괴시키고 해양 경관을 훼손하며, 수산 자원의 감소는 물론 선박의 안전운항



김영석 장관과 신우철 완도군수 등이 연안 쓰레기 청소작업을 하고 있다.

에도 영향을 미쳐 국제적으로 줄이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은 인류의 미래를 가꾸는 것과 같다”며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바다를 물려주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폐어구 등을 바다에 버리지 않는 등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실천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수산분야 R&D 현장컨설팅’ 추진 해수부, 수산 R&D 성과제고를 위한 연구현장 애로 해결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과 공동으로 9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수산 R&D 연구현장과의 소통강화, 연구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과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난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52개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과제를 담당하는 연구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6개 과제 담당자가 컨설팅을 요청하여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현장컨설팅은 전문가가 연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동 행사에서 과제 담당자가 연구추진과 관련된 규정을 직접 설명하는 한편, 현장 애로사항을 바로 접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발기인대회 개최 오는 10월 창립총회 ... 내년 초 공식 출범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발기인 대회 모습

국내 여성어업인들은 지난 8월 29일 수협중앙회 천안연수원에서 발기인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발기인으로 참여한 전국여성어업인연합회(임의단체) 임원진은 “여성어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어촌의 복

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는 설립 발기문을 채택했다. 발기인 대표는 발기인 전원 동의로 신황숙 전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이 선출됐다. 1996년 10월 ‘수협 부인회’로 출발한 한여련은 현재 회원 8,000여명을 둔 전국여성어업인연합회로 성장했고 만 20년 만에 다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는 이후 10월 창립총회를 열고 11월 설립등기를 마치게 되면 내년 2017년 공식 출범하게 된다.

“양식재해보험 꼭 가입하세요”

전북 집단폐사 완도어업인 보험 덕에 피해 최소화



완도 금일 앞바다 전복양식장에서 적조로 집단폐사한 전복을 어민들이 살펴보고 있다.

전북 집단폐사로 실의에 빠져 있던 전남 완도어업인들이 양식보험 덕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돼 정책보험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완도군과 피해 어업인에 따르면 폐사의 원인이 적조 등으로 판명되면서 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보험금을 지급받게 됐다. 이번 전북 폐사에 따른 공식 피해는 금일읍 348어가 303억7000만원, 생일면 34어가 20억2000만원, 약산면 20어가 2억4000만원, 신지면 5어가 1억5000만원 등 총 424어가에서 358억원의 피해를 입었

다. 이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253어가(241억원)는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보험 미가입 171어가(87억)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최고 50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가장 많은 피해 어가가 발생한 금일읍의 경우 348어가 중 71%인 248어가 보험에 가입했다. 지급될 보험금 범위는 양식장 규모, 폐사율, 보험 가입시기, 보험 계약액 규모, 가입연수에 따른 할인을 적용 등 어가별로 천차만별이다. 이번 폐사와 관련 지급될 보험금 규모는 작계는 피해액의 50%에서 거의 10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천재지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농어업에서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7년 해수부 정부예산 어떻게 편성되나

내년도 수산·어촌부문 예산 2조 967억원 편성... 올해보다 3.2% 증액

해수부 전체예산은 1.1% 늘어난 4조 9,297억원
수산물 수출·어업인 복지향상 등 투자 확대

내년 수산어촌 부문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3.2%(646억원) 늘어난 2조 96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다른 부문 예산이 대폭 감소하거나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좋은 대조를 이룬다. 특히 해사 및 항만분야의 내년 예산은 무려 1,000억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한편 내년 해양수산부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1%(519억원) 증가한 4조 9,297억원으로 편성됐다. 여기에다 내년부터 해양수산부가 편성 및 집행권을 확보한 어촌개발사업(842억원)을 포함할 경우 전체 예산 규모는 5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농림수산물부 시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장해

왔다. 내년 해양수산부 예산의 중점 투자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신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수산분야의 경우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 창업투자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하는데 따른 30억원을 비롯, 수산모태펀드 출자 100억원, 우수기술 사업화자금으로 1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아울러 기술교육, 행정절차 관련 상담서비스 등 원스톱 양식 창업에 5억원을 지원하는 등 예비 창업자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관상어산업 육성에도 연구개발비 10억원 등 모두 16억8000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수산물 수출확대를 비롯, 어업인 복지 향상 및 안전망 구축, 수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수산어촌 부문 정부예산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2조 967억원으로 편성, 어업인 복지향상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의 미래 산업화에 대한 재정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단지 조성을 2개소 추가하는 한편 수출물류센터 신설, 수출지원센터 4개소 추가 등 수산물 수출관련 지원 예산을 올해 233억원에서 264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921억원을 투입, 노후된 어업지도선을 대체(5척) 및 신조(3척)하는 한편 중

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인공어초 설치 사업비도 올해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5배 늘렸다. 아울러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전망 구축을 위해 어업재해보험 대상에 3개 품목을 추가, 모두 27개 품목으로 확대하며,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센터 20개소와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1개소도 추가로 건립한다. 이밖에 R&D(연구개발) 사업비도 올해(5,723억원)보다 3.5%(201억원)가 늘어난 5,924억원을 편성했다.

통계청, 2016년 상반기 어업생산 동향조사 분석

상반기 연근해어업 전체 생산량 15% 감소



올해 상반기 연근해어업은 꽃게, 멸치, 고등어 등의 생산 부진으로 전년 동기보다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어선의 불법어업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 등의 영향이 겹치며 상반기 어업생산량이 줄었다. 특히 연근해에서 잡히는 꽃게와 멸치, 고등어의 생산량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2016 상반기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어업 생산량은 200만 5,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1만 7,000톤)보다 0.6% 감소했다. 이에 따라 어업생산금액도 3조 3,363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1.8% 줄었다.

특히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43만톤

으로 전년동기보다 15.6% 감소했다. 이는 연근해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멸치 생산량이 4만 7,500톤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3% 줄었기 때문이다. 고등어도 6만9819톤으로 전년보다 38.9% 생산량이 줄었다. 꽃게 생산량 역시 7만 3,587톤으로 32.4% 하락했다.

원양어업도 35만 5,000톤을 기록해 전년보다 41.3% 감소했다. 가다랑어(-9.3%)와 눈다랑어(-11.5%), 가오리(-35.3%), 정어리(-30.1%) 등의 생산량이 급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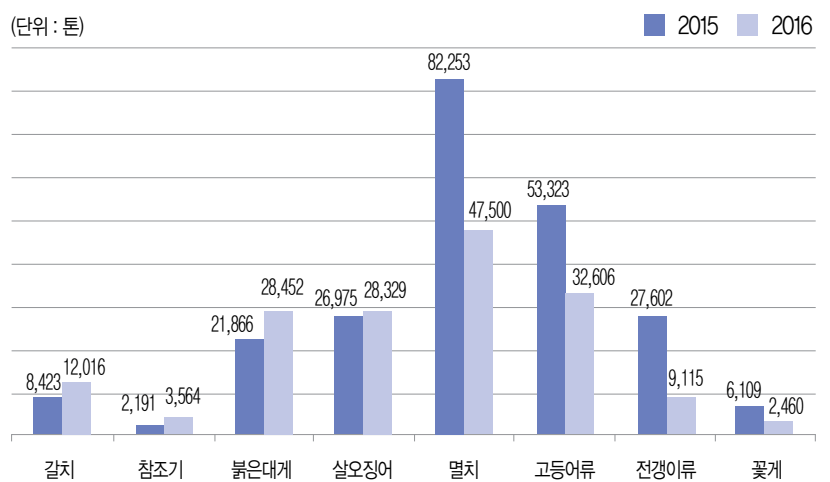
통계청 관계자는 "연근해 어업은 생

중 불법어업, 상반기 꽃게 생산량 60% 줄어
온난화 등 영향받아 멸치·고등어 어획량 감소

산 비중이 큰 멸치와 고등어, 전갱이류 등의 자원량 감소와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에 따른 조업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었다"면서 "원양어업은 엘니뇨에 의한 자원량 감소, 조업 부진이 생산량의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조류(김·미역)와 패류(굴·홍합) 등의 생산량 증가로 천해양식어업 생산량은 141만 8,000톤을 기록해 전년보다 16.6% 늘었다. 내수면어업(1만 5,700톤)도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5% 뛰었다.

【2016년 상반기 어업별 생산량】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불법어업 공동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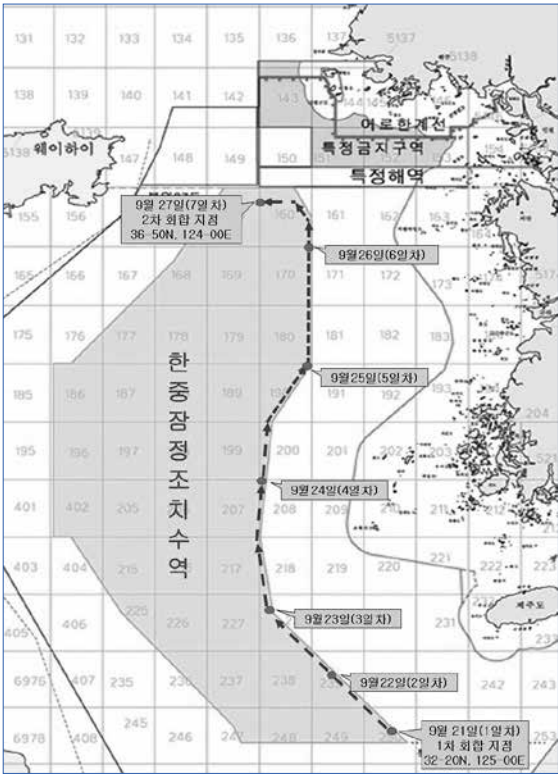
3, 7월에 이어 양국 지도선이 올해 3번째 공동순시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한·중 양국이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중국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해역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를 실시했다.

한·중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부속서(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의 후속조치로서, 2014년 12월 이후 7번째이자 올해 마지막 공동순시다. 지난 3월(3.18.~3.24., 7일간)과 7월(7.21.~27., 7일간)에 실시한 공동순시에서는 중국어선 502척을 확인하고 중국 단속공무원이 중국어선 6척에 직접 승선하여 조사하여 저인망어선 등 3척을 단속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양국 공동순시를 통하여 중국 측이 자국어선이 잠정조치수역에서 우리 수역을 넘나들면서 일삼고 있는 불법조업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공동순시는 중국의 하계 휴어기 종료 후 본격적인 성어기가 도래하기 전에 잠정조치수역을 거점으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불법어선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한중 공동순시 항적도 】

이번 순시에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2호(1,262톤)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303함(3,000톤)이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일주일간 잠정조치수역을 공동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했다.

해수부, 다시마 수출 확대를 위한 대(對)일 수출상담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9월 20일 일본 고베에서 일본으로의 국산 다시마 수출 확대 도모를 위한 '대(對)일 다시마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내 수출기업 4곳(기존 1, 신규 3)과 일본 수입업체를 포함한 약 40여 개 관련 업체가 참여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13일에 개최된 제39차 한일수산물 무역과장회의에서 '한국수산물무역협회'를 다시마 수출이행주체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7월 22일 한일 예비 검품회에서 사전 검증한 고품질 다시마 130여 톤이 출품됐다. 기존 업체 외에 3개 신규 업체가 행사에 참여하여 향후 일본으로의 다

시마 수출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일 수산물 무역과장회의에서 신규 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수출 방식을 개선하는 등 김, 다시마 외에 다른 국내 수산물도 일본으로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산물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일 다시마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66% 증가(89톤 → 147톤)하였으며, 이번 상담회에서 계약하는 수출 물량을 고려하면 올해 다시마 수출량은 작년과 비교하여 58톤가량이 증가(330톤 → 388톤)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7년도 한중 양국어선 입어규모 논의 시작

중국 란저우에서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준비회담'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중국 란저우에서 2017년도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어선 척수와 어획할당량 등 논의를 위한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1차 준비회담을 개최했다.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에 따라 매년 양국 교대로 개최해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양국어선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조업질서유지, 양국 간 어업협력 등을 논의하여 왔다.

2013년부터 양국 어선 입어규모를 1,600척, 6만 톤을 유지하기로 한 합의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이번 회담에

서는 내년도 이후 입어 규모에 대하여 양국의 입장을 교환했다.

특히, 가을철 꽃게 조업시기 도래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수역에 대한 중국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불법조업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장착 의무화, 승선조사 방해시설물 설치 금지 규정 마련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한중 양국은 9월 말 개최되는 2차 국장급 준비회담 후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양국어선의 입어규모, 조업조건, 절차 규칙 등 미 합의된 주요 의제에 대해 최종 합의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16.5.1.시행) 주요내용

어종별	포획금지 기간		포획금지 체장	
	현행	신설·조정	현행	신설·조정
대구	11~131 (부산, 울산, 경남)	31~331 다만, 11~1, 31(부산, 경남)	-	-
문치가자미	121~다음 해 131 (다만, 경북 21~228)	121~다음 해 131	-	-
전어	51~630 다만, 강원, 경북 제외	51~715 다만, 강원, 경북 제외	-	-
참조기	4.22~8.10(유자망)	7.1~7.31 (유자망 4.22~8.10)	〈신설〉	15센티미터 이하
갈치	〈신설〉	7.1~7.31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제외)	〈신설〉	항문장 18센티미터 이하
고등어	〈신설〉	4.1~6.30의 기간 중 1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신설〉	21센티미터 이하
말쥐치	〈신설〉	5.1~7.31	〈신설〉	18센티미터 이하
옥돔	〈신설〉	7.21~8.20	-	-
미거지	〈신설〉	8.1~8.31	-	-
소라	6.1~8.31 (전남 여수시 삼산면, 제주도) 6.1~9.30 (경북 울릉군 울릉도, 독도)	6.1~8.31 (전남 여수시 삼산면, 제주도) 7.1~9.30 (제주도 제주시 추자면 추지도) 6.1~9.30 (경북도 울릉군, 울릉도, 독도)	-	-
오분자기	〈신설〉	7.1~8.31(제주도)	-	-
살오징어	4.1~5.31 (다만, 정치망어업 제외)	4.1~5.31 (4.1~4.30,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다만, 정치망 제외)	〈신설〉	외투장 12센티미터 이하
낙지	〈신설〉	6.1~6.30 (다만, 시·도지사가 4.1~9.30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	-
갯장어	-	-	〈신설〉	40센티미터 이하
미거지(곰치류)	-	-	〈신설〉	40센티미터 이하
키조개	-	-	〈신설〉	각장 18센티미터 이하 (부산, 울산, 강원, 경북, 경남)
대문어	-	-	300그램 이하	400그램 이하
민꽃게	-	-	〈신설〉	복부에 알이 붙어 있는 암컷
비고	해당 기간 중 참조기, 갈치, 고등어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갈치,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는 어획량 중 각각 해당 체장의 어종을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수부, 9월 어식백세 수산물 '전어·새우류' 선정

〈9월의 어식백세 수산물〉



전어



새우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가을철 대표 생선인 전어와 달콤한 맛이 일품인 새우류를 9월의 어식백세 수산물로 선정, 발표했다.

전어는 수분이 적고 단백질과 지질, 무기질, 비타민 등이 풍부하다. 전어에는 라이신, 트레오닌, 트립토판, 트레오닌 등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 우리나라처럼 쌀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곡류에 부족한 아미노산 보충에 효과적이다. 특히, '가을 전어는 깨가 서말'이란 말처럼 가을철 전어에는 봄철에 비해 지질의 양이 3배 정도 많아진다. 또한, 전어에는 혈액을 맑게 하는 EPA 및 DHA 등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새우는 수산물 요리에 있어 약방의 감초같이 항상 빠지지 않는다. 새우는 '2014년 식품수급표' 상 국내 연간 수산물 식품 공급량 2위에 오를 정도로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수산물이다.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이유로 먹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새우에 들어 있는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은 콜레스테롤 농도를 떨어뜨리고 타우린은 혈관 중에 침착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을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동맥경화, 뇌졸중, 심장병, 고혈압 등 순환기 계통의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전어와 새우류는 9월 한 달 동안 수산물 전문 쇼핑몰인 인터넷수산물시장(www.fishsale.co.kr)에서 시중가격보다 10% 할인하여 판매한다.

한편, 이달의 지역축제행사로 9월 24일부터 10월 9일까지 충남 서천군에서 '제16회 흥원항 자연산 전어꽃게 축제'가 열린다. 맨손 전어잡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어 가을 여행으로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가을철에 특히 맛이 좋은 전어와 새우류를 드시고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온라인에서 참가 신청

취업박람회 누리집(www.mofjob.or.kr) 개설, 참가 접수 중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8월 31일부터 해양수산 취업박람회의 전용 누리집 '일자리의 바다(www.mofjob.or.kr)'를 개설하여 박람회 소개, 참가 접수, 프로그램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행사다. 올해는 10월 7일 여수와 10월 21일 부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해양, 수산, 해운, 물류 등 해양수산 각 분야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 공공기관과, 여수시 등 지자체와 지방공용노동청, 지역 기업들이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청년들이 높은 관

심을 보이는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의 채용설명회, 실제 인사 담당자가 참여하는 열린 채용 오디션, 명사 특강,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상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취업서류 작성부터 면접스피치, 면접 이미지 컨설팅, 모의면접 등 면접 노하우를 전수하는 다양한 이벤트관도 운영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들이 참가하여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누리집을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우리 갯벌의 레드카펫, 칠면초!

해수부, 9월의 해양생물로 자생 염생식물인 칠면초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가 우리 갯벌 상부에서 볼 수 있는 염생식물인 '칠면초'를 9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 발표했다.

칠면초는 갯벌의 대표적인 염생식물로 염분농도가 높은 곳에 분포하는 다육성 식물이라 건조에 강하고 즐기나 잎에 수분을 많이 함유하는 한해살이 식물이다. 칠면초 수컷의 머리 부분이 때에 따라 녹색에서 붉은색, 자주색으로 변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여 칠면초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외형적으로 길이는 15~50cm 정도이며, 곁가지도 곧게 뻗어 작은 나무처럼 보이고, 잎 끝은 곤봉모 양과 유사한 특징이 있으며, 처음에는 녹색이지만 자라면서 붉은색이 강해지다가 9월경에는 붉은빛이 도는 자주색으로 변하여 갯벌에 레드카펫을 깔아 놓은 듯한 장관을 이룬다.

또한, 우리나라 칠면초는 강화도 남단갯벌, 영종도 갯벌, 무안갯벌, 순천만 갯벌 등을 비롯하여 주로 서남해안 갯벌 상부지역에 군락을 이루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칠면초 군락은 갯벌에 사는 갑각류나 패류의 서식처인 동시에 바닷새에게는 휴식처이므로, 훼손된 갯벌



을 복원할 때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생태계 구성요소이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갯벌복원 사업을 통해 중국 판진의 적색 해변(Panjin Red beach)*을 뛰어넘는 칠면초 군락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라면서, "칠면초 등 우리나라 자생 해양생물을 포함해 수많은 미래 자원을 내포하고 있는 갯벌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한국지울관리어업 연합회 소식란

한국지울관리어업연합회 임시이사회 개최

한국지울관리어업연합회는 9월 21일 강원도 동해시 동해체육관에서 열리는 제13회 지울관리어업 전국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주요안건은 대회 슬로건, 어업인 숙박업소 및 음식점, 버스임차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지난 8월 18일 출범한 제13회 지울관리어업 전국대회 준비위원회 회의 전경

2016년도 성공한 지도자 공동체 순회교육 실시

한국지울관리어업연합회는 9월 26일 울산 북구 당사마을회관에서 당사공동체 구성원 2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성공한 지도자 공동체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지울관리어업 정책방향(강사: 오용대 부산울산담당 컨설턴트) 및 성공공동체 사례(강사: 김광석 동삼공동체 위원장)를 교육했다.



지난 7월 26일 실시한 성공한 지도자 공동체 순회교육 전경